

체육전공 대학생의 블렌디드-PBL 기반 진로교육 효과성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Blended-PBL-based Career Education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Education

김성덕*(백석대학교)

sungduck Kim *Baekseok Univ.*

요약

본 연구는 체육전공 재학생의 블렌디드-PBL 기반 진로교육의 효과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C도시에 위치한 대학의 체육전공자 중 A 수업에 참여한 대상자 40명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3명의 자료를 제외한 37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차시에 따른 1차 진로심리검사와 핵심이론제공, 인터뷰, 2차 진로심리검사를 실시하였고, 차시에 따라 연구자가 측정 가능한 DISC행동유형검사와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활용하여 직업선호도(홀랜드)검사와 직업가치관검사를 수행하였다. 심리검사결과는 직접 결과값을 도출하거나 워크넷 사이트 결과를 활용하였고, 진로준비행동 검사 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과 빈도분석, 대응표본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체육전공 대학생들은 개인적 혹은 직업적으로 사회형, 사교형 특성의 직업군을 희망하였고, 둘째, 체육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은 블렌디드-PBL교육 이후 2개요인의 제외하고 10개의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체육전공 대학생의 충분한 자기이해를 기반으로 자기주도학습에 기반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경우, 진로준비 행동에 유의미한 결과를 획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blended-PBL-based career education for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educa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40 subjects who participated in class A were selected and surveyed from March to June 2021 among the physical education majors at the university located in C city. Finally, the data of 37 people who submitted the assignment were used for the study. Next, the research process was conducted on a weekly basis. After the first and seco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ests and core theory lectures, Holland tests and disc behavior type tests were conducted. And the pre-post-analysis of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est was conducted based on SPS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Holland test and disc behavioral type test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education, the occupational group with professional soci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was desired, and the social type type was high. Second, it was found tha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creas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ter blended-PBL education. Therefore, it is estimated that career education based on self-directed learning is necessary based on sufficient self-understanding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education.

Key words : Career Education Blended-PBL-based majoring in Physical Education Effectiveness

* sdskim@bu.ac.kr 이 논문은 2021년도 백석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1. 서론

스포츠는 근본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개인, 집단 등이 운동 기능을 경쟁하는 신체활동이라 할 수 있다. 경기로서 스포츠의 의미를 넘어 높아진 스포츠 수요는 체육활동 혹은 스포츠에 대한 다양한 형태, 달라진 인식으로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고, 더 나아진 삶을 추구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이지은, 2016). 스포츠 혹은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만큼 체육, 스포츠 서비스를 생산하는 지도자나 전문가 양성도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체육백서(문화체육관광부, 2019)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년제 대학 체육계열학과 학생 수는 총 7만 1,019명(남학생 5만 2,074명, 여학생 1만 8,945명)으로 다양한 명칭의 체육관련 학과로 제시되어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한편, 체육학의 태동 이후 시기별로 다양한 형태의 체육전공이 분화되어 확대되었지만, 정작 체육학 전공자로 자기진로에 대한 명확성, 구체성을 얼마나 소유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직업군에서 활동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통계서비스(2019) 자료에 의하면, 체육계열 졸업자의 1차 유지 취업률은 86.2%로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소위 유지 취업율이라는 부분에서는 74.2%로 낮아지고, 또한 그 시기가 1년 미만에 10%를 넘게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최초 입사 후 단기간 내에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체육학 졸업자의 현장 직업 진출 분야의 종류는 전일제 운동 지도자, 시간제 지도자, 운동 지도에 활동하는 프리랜서 등의 스포츠 활동에 직접적이고 전통적인 지도 분야에 집중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공과는 무관한 특성이 있다. 따라서 높아진 수요와 늘어난 학과, 전공 개수에 걸맞게 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직업군을 탐색할 필요가 있고, 또한, 왜 취업하는 분야가 다양하지 못하거나 명확한 취업 분야가 존재하지 않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으로 대학의 체육계열 학과는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고 다른 전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입시경쟁률을 확보하고 있지만(김성덕, 2020), 반면, 다양한 전공 명칭과 달리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대동소이(大同小異)한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보전계열이나, 사범계열 전공자가 졸업 후 면허를 취득하여 취업에 도움을 받는 경향과 달리 체육학 전공자는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서의 수업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형성한 자격과 역량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에 부흥하는 전공으로 상대적으로 수요에 민감한 직업을 선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업 활동에서 수강하는 수업을 통해 자신이 나아갈 진로를 선택하고, 이를 위해 학습, 노력, 투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반적인 체육전공 교육과정은 체육학문 중심으로 체육 전문성을 확보하지만 반면 체육 전문성을 사회요구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개인에게 적합하게 개발 및 발전시킬 진로와 관련된 교육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대개의 대학에서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제공하는데, 그 주체는 대부분이 교양 대학이다. 물론, 대학을 통해 생애주기에 필요한 진로교육을 배양하는 목적에서 교양 공통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다. 진로교육의 일반적인 과정이 진로교육의 핵심이론과

자기 이해, 자기 이해를 위한 다양한 진로 심리검사의 활용과 적용, 자신의 희망하는 분야 정보 탐색, 계획수립과 매칭, 그리고 추진방법이라는 공통적인 관점에서(황태향, 김연진, 이승구, 전방연, 2019), 체육학, 체육전공자에게 적합한 진로교육이 제공되는 것인가? 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이는 체육 전문성이 결여된 진로교육이 체육전공자에게 주는 공감과 피드백의 한계 때문일 것이다.

삶에서 매우 중요한 진로선택은 어느 한순간에 형성되지 않는다. 진로에 대한 의식은 자기인식,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와 이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의사결정이 영향을 주므로 진로교육은 올바른 진로선택에 중요하다(Ginzberg, 1971). 최근 들어 몇몇 전공에서도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양 대학 차원에서의 진로교육을 넘어 취업과 경력개발을 위한 방법으로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확대하고 있으며(장선호, 2017), 스포츠 분야에서도 운동선수 진로교육 필요성(권형일, 최미화, 2020), 중도은퇴 학생 선수의 진로관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장승현, 2021), 체육 분야에서도 진로교육의 활성화 논의가 시도되고 있다. 또한, 학생 운동선수가 아닌 체육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의 진로에 관하여, 자기효능감, 진로준비 행동의 중요성이 부각 되는 등(박정준, 홍애령, 2016; 홍민아, 유정애, 2020), 체육학 분야에서도 진로교육의 확대 필요성이 고조되어 체육전공자 입장에서 진로교육의 당위성이 공감되고 있다. 현재 전문 운동선수, 학생운동선수의 진로에 대한 연구를 필두로 체육학 전공자의 진로준비 행동과 관련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 체육전공자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는 초보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한편, 최근의 대학교육은 기존의 강의식 위주의 단방향 교육을 넘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식 학습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강유석, 조가람, 2021). 이는 기존 정보의 변화 주기가 매우 짧고 지식 위주의 학습에서 문제해결, 협업 등을 통해 미래 사회인으로서의 역량 함양이 주요 목적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한 교수법으로 융합과목의 개설, 팀티칭, 산학협력 성과 목적인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교실과 현장을 연결하는 서비스 러닝(Service Learning), 선수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문제중심 학습(Problem Based Learning), 프로젝트 중심 학습(Project Based Learning) 수업이 대표적이다(장경원, 2007; Delisle, 1997). 무엇보다 비구조화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 중심으로 상황을 해결하는 PBL 학습은 전공 영역은 물론, 타 전공과의 협업, 융합적인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 방법으로 자기주도식 학습에 대표적인 방법으로 확인되었다(이혜숙, 2008). 따라서 PBL 학습은 대학생에게 인식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스스로 학습, 협업, 자기 주도적 탐색 등을 통해 학습해 나가는 대표적인 교수 방법으로(김동학, 김동환, 2021). 최근 교육학, 경영학, 공학, 인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에게 실제 상황에 유사한 형태로 학습자 스스로 문제해결을 경험시키므로(박경일, 김안나, 전형원, 2019, Woods, 1994), 자신의 삶에 거쳐 학습해야 하는 진로 분야에서 PBL교육은 물론, 사회, 미술, 과학 등, 다양한 교과에서 적용된다(이혜숙, 2008).

한편, 최근 고도화된 정보화, 인터넷 속도의 가속화, 스마트 기기 확산과 활용 다양성으로 확대된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형태인 Blended-PBL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강유석, 조가람, 2021). 이는 기존의 교육이 공간의 제약과 시간의 제약에 따라 소멸되는 특성에서 학습공간과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협력 학습이다(류은수, 2018). 특히 Blended-PBL 교육의 확산은 에듀-테크(Edu-Tec) 기반의 교육환경에 변화를 초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어 미래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온라인 원격강의, ZOOM 실시간 강의 등)으로 전환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실정에서 또한 감염병 환경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희망하는 학습자와 원격(온라인) 수업을 희망하는 학습자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Blended-PBL 교육은 그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다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의 협력 학습이 만사형통이 될 수는 없다. 외부 환경적인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구성되는 블렌디드(Blended Learning) 형태의 수업, 원격강의로 제공되는 수업의 경우 교수 실재감에서 한계가 있고, 이러한 요인이 결국 수업에 대한 만족과 지속 참여에 매우 큰 영향을 주므로(김성덕, 김주영, 2021), 그 단점과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하고, 무엇보다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교육을 제공하는 Blended-PBL 수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체육계열 대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진로교육과 이를 활용한 실제적인 진로설계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생 스스로 수업에 참여하여 성취수준을 높이는 PBL 수업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공하여,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진로교육 방법의 한 형태로 제시하고 향후 체육학 전공자의 진로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H1 : 체육전공 대학생의 진로심리 검사결과와 희망진로탐색은 어떠한가?

H2 : 체육계열 대학생의 진로교육은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체육전공 대학생의 진로이론

1. 직업 가치관의 명료화

대중들은 모두, 건강, 돈, 명성과 삶의 여유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은 매우 다양하고, 사람마다 다르다(황매향 등, 2019). 특히 MZ 세대의 특성은 어떤 한 집단과 세대의 특성을 공유하기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존중하는 삶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대학생집단이 인식하는 가치관에 대해 알아보고 명료화하는 것은 개인의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 토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정보 및 구직, 구인 등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는 워크넷(www.work.go.kr)에서 진로부분을 살펴보면, 총 19종의 직업심리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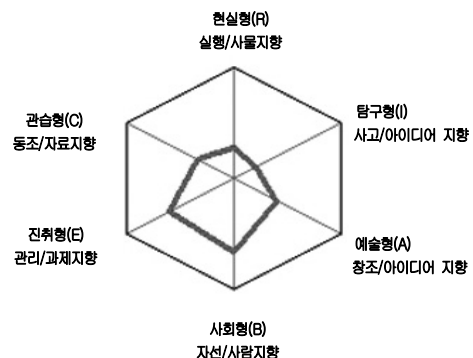
구분되어 있는데, 두 집단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대표적인 검사가 직업가치관 검사이다. 이는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개개인이 실제 삶에서 중요시 하게 되는 요인과 직업적 요인에서 중요시하는 요인을 살펴보는 특성이 있어, 진로를 설계하고 진로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매우 유의하다 할 수 있다(김주, 김명숙, 송민경, 2021).

2. 개인성향 파악과 DISC 행동유형

DISC 행동유형은 가치, 태도, 감정, 생각 등의 내면적 요소를 중요시 하는 성격유형 도구와 달리, 외적으로 탐색이 가능한 개인의 행동 경향성을 관찰하여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라 할 수 있다(김성덕, 2014). 일반적으로 DISC행동유형은 4가지 하위 형태로 구성되는데, 주도형인 D형(Dominance), 사교형인 I형(Influence), 안정형인 S형(Steadiness), 신중형인 C형(Conscientiousness)으로 나뉜다. 각각의 행동성향은 특성이 있어 D형은 자기 주도성이 강하고 독립, 도전적, 열정적이고 I형은 사람 중심적이며 낙관적이고 감성적인 특성이 있다. 반면 S형은 안정과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협력적이지만 변화를 싫어하는 성향으로 대표되고, C형은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아 치밀하고 분석적인 성향으로 대표된다(김성덕, 2014). 무엇보다 DISC 행동유형과 진로에 관하여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쉬운 특성이 있어, 개인의 흥미와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김보람, 2018).

3 진로 탐색을 위한 홀랜드 검사

DISC 행동유형이 개인적인 성향과 흥미에 대한 탐색이라면, 좀 더 포괄적인 흥미(개인적 직업 흥미의 일치성)검사는 홀랜드 진로적성검사로 할 수 있다. 홀랜드 이론은 개개인의 성격유형을 6가지 기본유형과 거기에 적합한 직업환경 6가지를 제안하여 많은 직업에 대한 흥미, 기술, 능력을 확인해준다(황매향 등, 2019). 홀랜드 이론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현실형(Realistic), 탐구형(Investigative), 예술형(Artistic), 사회형(Social), 진취형(Enterprising), 관습형(Conventional)의 6가지(RIASEC모형)로 설명되고, 각 성격유형은 직업환경에 직면했을 때 문제에 대한 반응, 태도, 기술, 선호, 가치 등의 일련된 특성을 드러낸다.



〈그림-1〉 직업 흥미도(홀랜드)검사 결과 갈무리
출처: 고용노동부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대개 한 사람이 한 개의 성격유형을 갖지 않고 한 두 가지로 혼합되는 유형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직업환경 또한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관습형, 사회형, 진취형으로 분류되어 이는 개인이 그 직업에서 일하는 방식에 따라 나타나며, <그림-1>과 같이 흥미 육각형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흥미분야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과 작업환경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 일치도가 높다고 할 수 있어 어떤 흥미 유형인가와 작업환경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관점으로 개인이 진로를 설정 하는데 도움을 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37)

변인	내용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학생	19	51.4
	여학생	18	48.6
학년	2학년	30	81.1
	3학년	7	18.9
전공	스포츠건강관리	30	81.1
	스포츠산업	3	8.1
	생활체육	4	10.8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1년 3월 ~ 6월까지 B대학 체육계열 전공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스포츠 00코칭 수업에 참여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체인원 중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19명, 18명이고, 학년은 2학년이 전체의 80% 이상으로 분포되었으며, 전공별도 수업이 개설된 스포츠 건강관리(81.1%), 생활체육(10.8%), 스포츠산업(8.1%)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절차

연구대상이 되는 수강생에게 수업 목적을 설명하고,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 준비에 해당하는 진로준비 행동검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주차별 로 수업내용을 전개하였다.

구체적으로 진로준비 행동척도에 대한 사전테스트(2주차)와 사후테스트(14주차)를 진행하였고, 전반기에 진로이론 수업, 후반기는 진로심리 검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수강생의 진로교육 효과성을 탐색하였다. 세부내용은 표2와 같다.

표 2. 차시별 세부 학습 내용 방법

내용	세부내용
1주차 - 수업 배경 및 목적, 수업 추진체계 등	OT
2주차 - 진로교육 중요성, 진로준비 행동 1차 검사	1차 진로준비 행동검사
3주차 ~ 7주차 - 3주차: 자기이해 - 4주차: 진로발달이론 - 5주차: 직업, 직업세계관의 이해 - 6주차: 스포츠산업, 시장분석, 스포츠 직업맵 - 7주차: 핵심이론에 대한 필답평가	핵심이론강의 필답평가
8주차 ~ 11주차(진로심리검사 측정과 활용) - 8주차: 직업가치관 검사와 활용 - 9주차: 직업선호도검사와 자기이해 - 10주차: DISC 행동유형검사와 활용 - 11주차: 진로심리검사와 스포츠직업의 매칭	진로심리 검사와 스포츠 직업 매칭 방법
12주차~15주차 - 12주차: 인터뷰 대상선정 및 인터뷰 - 13주차: 인터뷰 진행과 내용분석 - 14주차: 진로준비 행동 사후검사 등 - 15주차: 수업성과 최종 평가	2차 진로준비 행동검사 인터뷰경험과 자기주도적 문제해결경험

3.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수업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에게 진로준비 행동척도를 총 2회 실시하여 조사하였다. 1회는 수업 2주차, 2회는 14주차에 아래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1) 진로준비행동의 측정

Ginzberg(1971)는 대학 생활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진로준비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흥미, 가치를 고려하고, 일에 대한 탐색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직무를 이해하고, 몰입을 통해 그 일이 적합하다는 자부심과 이를 통해 지식과 경험을 쌓는 합리적인 준비를 진행한다는 의미이다(김민정, 2016). 따라서 진로준비 행동은 자신이 진로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진로목표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수행한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행위의 차원이다(김수리, 2004).

진로준비 행동이 자기 주도적인 진로설계와 진로 방향을 이끌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구인임을 주장한 김봉환(1997)은 진로준비 행동을 정보수집 활동과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제시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수업에 수강하는 학생들이 졸업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낮은 2학년과 3학년으로 편성된 점을 반영하였다.

표 3. 체육전공 대학생의 진로교육에 따른 희망 직업군 검사결과

구분	직업가치관			홀랜드	DISC	희망 직업	구분	직업가치관			홀랜드	DISC	희망 직업
	직1	2	3					직1	2	3			
1	F	A	D	ES	ID	A.T	21	A	B	C	SA	IS	심판
2	I	B	D	SE	DI	군인	22	L	D	F	CS	IC	A.T
3	F	D	L	SA	IS	지도자	23	G	H	I	SE	C	군인
4	F	A	C	SA	DI	운동처방사	24	D	F	A	RS	IC	지도자
5	A	D	F	SA	IS	P.T	25	D	B	F	SR	SI	운동복지사
6	D	F	E	SI	CI	R.T	26	F	A	B	SA	CD	교사
7	B	J	D	RS	DI	경호원	27	M	D	F	SE	IS	R.T
8	A	G	I	SE	SI	A.T	28	F	M	A	ES	CI	시니어강사
9	A	M	E	AS	IS	A.T	29	A	B	C	RI	S	소방공무원
10	A	F	D	SR	SI	A.T	30	H	A	D	SE	SD	경찰공무원
11	A	D	F	SE	IS	R.T	31	A	D	F	SA	IS	소방공무원
12	D	A	L	SE	SI	교수	32	A	D	G	SE	IS	미정
13	D	L	F	ES	ID	P.T	33	A	F	E	SE	IC	R.T
14	A	B	C	SA	IS	A.T	34	A	F	D	SE	IS	지도자
15	A	D	F	CS	S	시니어강사	35	A	F	I	SE	SI	교사
16	F	D	H	SE	IS	미정	36	H	D	F	SA	SI	R.T
17	F	A	D	SE	IS	R.T	37	A	M	F	SA	SD	R.T
18	B	D	F	SR	IS	미정							
19	F	D	L	CI	C	지도자							
20	I	M	A	RS	IC	군인							

* PT, Personal Trainer, RT, Rehabilitación Trainer, AT, Athletic trainer, 지도자(유아,성인), 시니어강사(노인)

* 직업가치 13개(한국고용정보원). A.성취 B.봉사 C.개별활동 D.직업안정 E.변화지향 F.몸과마음의여유 G.영향력 발휘 H.지식추구 I.애국 J.자유 K.자율 L.금전적보상 M.인정 N.살내활동

표 4. 체육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 사전-사후 검사 값

구분	측정내용	사전인식		사후인식		사전-사후인식		t값(유의확률)	
		m	sd	m	sd	m	sd		
1	목적달성을 위한 꾸준한 노력	3.43	.90	4.27	.84	-.74	1.30	-3.914***	.000
2	목적이 자주 변경	3.43	.90	4.03	.83	-.59	.83	-4.347***	.000
3	시작한 일은 끝을 봄	3.69	.75	4.14	.80	-.44	.91	-2.935	.006
4	노력하는 사람	4.03	.69	4.35	.72	-.32	.82	-2.411	.021
5	새로운 목표나 관심사에 흥미	3.43	.90	3.86	.82	-.43	.96	-2.744	.009
6	진로가 해마다 변경	3.40	.80	4.03	.90	-.62	1.01	-3.745***	.001
7	결림돌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음	4.24	.64	4.49	.61	-.24	.76	-1.946	.059
8	새로운 관심사로 기존목적달성 어려움	4.16	.60	4.35	.72	-.19	.84	-1.363	.181
8	목적달성의 차질에도 계속 노력	3.62	.83	4.08	.95	-.46	1.10	-2.552	.015
10	내키지 않은일도 끝까지 수행	3.65	.95	4.13	.82	-.49	1.12	-2.640	.012
11	근면 성실한 사람	4.00	.71	4.32	.71	-.32	.91	-2.157	.038
12	목적달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	4.00	.78	4.43	.69	-.43	.99	-2.665	.011

*** $P < .001$

본 연구의 측정 도구인 진로준비 행동은 진로준비과정과 진로 결정과정의 2개 하위요인, 12문항으로 구성하였고, 해당 문항과 함께 기초적인 요인을 추가하여 진로교육 이전 수강생의 진로준비 행동을 측정하였다. 이후 한 학기 동안, 진로에 대한 핵심이론과 수강생의 자기 이해, 진로 심리검사(가치관, 직업 흥미도, DISC 행동유형 검사)를 통해 개인에게 적합한 직업군을 소개하였다. 특히 전공 분야인 스포츠 직무 및 직업 등에서 필요한 역량을 이론적으로 소개하고 이후 개개인들이 희망하는 진로를 설정하게 하였다. 선정된 직업(직무)에서 선행적으로 활동하는 대상(인물, 직업)을 선정하여, 준비된 내용을 토대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후 인터뷰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개인의 진로준비 행동검사를 재측정하여 결과의 차이를 확인했다.

IV. 연구결과

1. 진로심리검사로 살펴본 체육전공 대학생의 희망 직업

수업에 참여한 37명의 대상자에 1학기 동안 전개된 수업을 통해 이론적 지식을 함양하고, 개인의 진로준비 행동에대한 수준을 사전, 사후로 검사하여, 실제 희망하는 직업군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준비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1) 연구대상의 직업 가치관

이상의 과정을 통해 표<3>과 같이 체육전공 대학생들의 직업 가치관은 다양하게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직업 가치관의 첫 유형에서 “성취” 가치관이 가장 높은 빈도(14회)를 나타냈고, 둘째 유형에서는 “직업안정”, 셋째 유형에서는 “몸과 마음의 여유”가 나타나는 특성이 있었다. 반면, 자율, 자유, 실내 활동은 연구 대상의 직업 가치관으로 선택되지 않았다.

2) 연구대상의 직업 흥미 코드와 희망직업의 연결성

연구대상에 대한 직업 흥미검사 결과 개인의 성격유형과 희망하는 직업의 연결성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Social(사회형)”이 전체 대상자 37명 중 35명이 포함되어 가장 높게 나타났고, “Enterprising(진취형)” 15명, “Artistic(예술형)” 10명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흥미 코드가 두 개로 나타나는 직업 흥미(홀랜드) 검사의 특성에서 <그림-1>과 같이 “Enterprising(진취형)”과 “Artistic(예술형)”이 “Social(사회형)”에 바로 우측과 좌측에 근접하여 높은 일치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과 2개 코드가 동시에 존재(예: SE, ES SA, AS)한다는 것에서 RIASEC 모형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희망하는 직업 분야가 운동을 지도하는 PT, RT, AT, 지도자임을 고려할 때 높은 사회성이 요구되는 특성으로 직업이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다.

3) 연구대상의 DISC 행동유형과 직업 연결성

연구대상의 행동유형은 37명 중 30명이 “Influence(사교형)”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시에 “Steadiness(안정형)” 성향이 19명으로 나타나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며, 사람 중심의 성향이 두드러지고 반면, 변화보다는 안전적인 환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ominance(주도형)” 성향도 5명으로 나타났으며, “Conscientiousness(신중형)” 성향도 전체 인원 중 5명이 주도적이고, 명령적이거나 분석적이고, 세밀한 성향은 연구대상에서 낮은 분포를 나타냈다. 이는 내용적으로 연구 대상자가 희망하는 다수의 직업이 대인 운동 지도인 선수 트레이너, 재활 트레이너, 퍼스널 트레이너라는 점에서 유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 체육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사전-사후 검사결과

본 연구에서는 표<4>와 같이 연구 대상자들에게 진로준비 행동에 대한 사전-사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진로교육의 당위와 핵심이론, 개인의 진로심리 측정 이전에 자신의 진로준비 행동을 측정하였고, 이후 다양한 교육과 측정, 인터뷰 이후에 재차 진로준비 행동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표<4>와 같이 6요인과 7요인을 제외한 10개의 요인에서 진로핵심 이론, 진로심리 검사, 실제로 진행한 인터뷰 등을 통해 진로준비 행동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진로준비 행동과정 중 진로준비과정의 경우 6개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나타내어, 체육계열 전공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 입장에서 진로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진로에 대한 준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을 추정할 수 있고, 반면, 진로준비 행동 중 진로결정 과정의 경우에서 여전히 6개의 요인 중 4개의 요인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진로에 대한 탐색 과정이 필요하고, 결정함에 있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함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더욱이 1학기 과정으로 진행된 진로준비 행동에 대한 검사 값이 높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체육전공 대학생의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시대 요구와 환경에 부합된 블렌디드-PBL 학습형태로 제공하고, 이에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체육전공 대학생의 진로심리 검사결과와 희망직업도출, 수업을 통한 진로준비 행동의 변화를 토대로 체육전공 대학생의 진로교육 필요성과 확대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 체육전공 대학생의 진로 심리검사 결과에 따른 희망 직업 선택은 상당 부분 연관성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연구대상들은 “성취”라는 가치관을 매우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가 한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 학습되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Ginzberg, 1971). 즉, 다양한 직업경험이 없는 학생으로

서 다양한 가치관 중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어떤 결과를 획득하고 성장하는 차원에서 성취감이 상대적으로 가치 있게 인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체육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이 이론과 실기가 병행되어야 하는 특성과 희망 직업의 전체가 대상자에 따른 운동을 지도하거나 서비스하는 실무 중심의 직업이어서 실내 활동이라는 가치관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체육학 전공자 37명 중 2명을 제외한 35명에서 홀랜드 검사가 사회형으로 나타나고, 동시에 진취형과 관습형 순으로 나타나 일치도를 높게 형성하였고, DISC 행동유형에서도 37명 중 6명을 제외한 31명에서 사교적 성향이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두 개의 검사를 통해 체육전공 대학생이 사회성이 높은 직업군에 노출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결과인 것으로 실제, 체육전공 대학생이 희망하는 직업도 대인 운동 지도분야 위주로 나타난 특성이 있어 이러한 검사결과를 논리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보람(2018)도 간호전공 대학생의 DISC 행동유형과 직업선택에서 다른 유형보다 간호사를 희망하는 학생에서 사교형(형)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었는데, 이는 간호사 직무가 환자응대 서비스를 주된 업무로 하는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조용석(2018), 김효현(2015) 등의 일부 운동지도자의 DISC행동유형과 지도만족에서 지도자와 성향유형이 개인과 일치될 때 운동지도에서 만족함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 사교형과 안정형이 높은 이유도 성향의 일치성 때문으로 간접적으로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체육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검사의 사후 값은 사전 측정값에 대비하여 전체 12개의 요인 중 2개의 요인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김민정(2016)도 진로준비행동이 개인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를 간접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진로교육을 통한 자기이해, 정보탐색과 인터뷰를 통한 진로 의사결정을 경험한 뒤 그 이전보다 진로준비 행동이 높아진다는 것은 자기조절 능력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윤지은, 강영배(2019)도 대학생의 문제해결 대처전략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의 블렌디드-PBL 수업을 활용한 진로코칭이 진로준비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경험은 막연하고 불안한 미래와 진로를 극복하고 대처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일종의 진로 결정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획득한 것인데, 자기 효능감의 과정은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성취의 경험을 얻고, 다른 학생을 통해 획득한 진로정보로 대리성취가 가능하며, 동료나 교수자, 인터뷰어의 응원과 인터뷰 후 본인이 인지하는 어떤 메시지로 자신의 능력과 기능의 부족한 부분을 인지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결국, 진로준비 행동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연구(송현심, 홍혜영, 2010)도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체육전공 대학생의 블렌디드-PBL 기반 진로교육의 효과성을 구명하고자 하였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체육전공 대학생의 진로심리검사와 희망직업탐색은 유의미한 연계성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자는 홀랜드 검사와 DISC행동유형 검사에서 사회(사교)형이 모두 높게 나타났고 실제 사회성이 높은 직업(대인 운동지도 직업군: PT, AT, RT, 지도자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희망한 직업분야와 실제 자신의 진로결정이 일치될 때 그 어떤 인지부조화 없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로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업활동의 적합성이 장려될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체육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사전-사후비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체육전공 대학생의 막연한 진로를 한층 개선하기 블렌디드-PBL기반 진로교육을 제공한 결과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는 진로준비과정과 진로결정과정 모두에서 진로교육이 전개되기 이전보다 훨씬 더 높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교양대학에서 제공되는 진로교육 이외 체육전공자의 자발적 참여와 문제해결, 공감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진로학습이 장려될 필요가 있겠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체육전공자에게 적합한 진로교육이 확대되어 실효성 있는 진로교육으로 역할을 기대한다. 이로써 체육계열 대학생의 휴학, 자퇴 등의 중도 포기를 빈도를 낮추고 궁극적으로 자기 주도적인 진로 탐색과 개발을 통해 자기가 희망하는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며 인식되었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코로나 19 감염환경에서 한 학기 동안 특정 대학, 특정 수업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국한된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지역과 대상으로 표집을 확장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블렌디드-PBL효과에 대한 입증보다, 연구에서 측정 가능한 진로준비행동과 대상자의 진로심리검사와 희망직업군의 매칭 적합도를 내용적으로 분석한 한계가 있다. 이는 아직 체육 학문 분야와 진로 분야에서의 연구가 확대되지 못한 현실과 이와 관련된 분야의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관점에서 연구자가 보유한 심리 측정 도구를 진로 분야에 활용하여 적용하고 이를 내용적인 타당성에 의해 논의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어지는 후속연구와 탐색에서는 충분한 현장 접근과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체계적인 연구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유석, 조가람(2021). 대학 특수체육수업에 대한 Blended_Pbl의 적용 가능성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59(5), 413-427.
- 권형일, 최미화(2020). 대학생 학생선수를 위한 진로교육 교과목 개발

- 의 필요성 및 교과내용 제안. **한국체육학회지**, 59(2), 109-119.
- 교육통계서비스(2019). **2019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 2020. 10. 30일 검색 <https://kess.kedi.re.kr/mobile/>
- 김동학, 김동환(2021). 스포츠지도자 양성을 위한 PBL 기반 체육대학 전공수업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60(3), 275-289.
- 김민정(2016).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9(2), 89-107
- 김보람(2018). **간호학과 학생들의 DISC행동유형별 전공만족도 및 직업 선호도 분석**.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광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성덕(2020). 체육대학 입시유형과 실기평가에 대한 고찰. **한국체육정책학회**, 18(2), 169-183.
- 김성덕(2014). 스포츠 서비스업 종사원의 DISC행동유형과 직무스트레스, 개인-환경 적합성 및 이직의도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3(3), 499-512.
- 김성덕, 김주영, (2021).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체육전공 대학생의 교수실제감, 온라인 수업 만족도, 인지된 학업 성취도 및 지속참여의사의 관계. **스포츠사이언스**, 39(1), 301-309.
- 김주, 김명숙, 송민경(2021). 대학생의 직업가치관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지**, 18(1), 49-74.
- 김효현(2015).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요기수련의 만족도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 류은수(2018). Blended PBL 교수-학습 설계모형의요인이 학습성과 요인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구조방정식 모형의 2차 요인 분석모형을 중심으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4(2), 223-253.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 체육백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박경일, 김안나, 전형원(2019). 사회복지교육과정에서 PBL의 적용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47, 31-53.
- 박정준, 홍애령(2016). 체육계열 대학생의 진로 인식을 통한 대학 진로 교육의 방향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3(3), 65-88.
- 송현심, 홍혜영(2010). 대학상담,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3), 1325-1350.
- 이혜숙(2008). **PBL 기반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 장승현(2021). 중도은퇴 학생선수의 새로운 진로로의 전환: 비(非)스포츠 진로전환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체육학회지**, 60(2), 119-132.
- 정선호(2017). 핵심역량 기반 교양교육과정에서의 진로교육 현황 분석. **교양교육연구**, 11(4), 363-387.
- 장경원(2007). 블랜디드 PBL을 위한 효과적인 학습공간 활용 전략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7(2), 207-232.
- 조용석(2018) **생활체육지도자의 DISC행동유형이 여성 노인의 수업지도 만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 황매향, 김연진, 이승구, 전방연(2019). **진로탐색과 생애설계**. 서울: 학지사.
- 홍민아, 유정애(2020). 체육계열 여대생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4(1), 135-147.
- Delisle, R.(1997). *How to use problem-based learning in the classroom*. Alexandria, VI: ASCD
- Ginzberg, E. (1971). Work: The eye of the hurricane. *Humanitas*, 7(2), 227-242.
- Woods, D. R. (1994). *Problem-based learning: How to gain the most from PBL*. McMaster University, Hamilton.